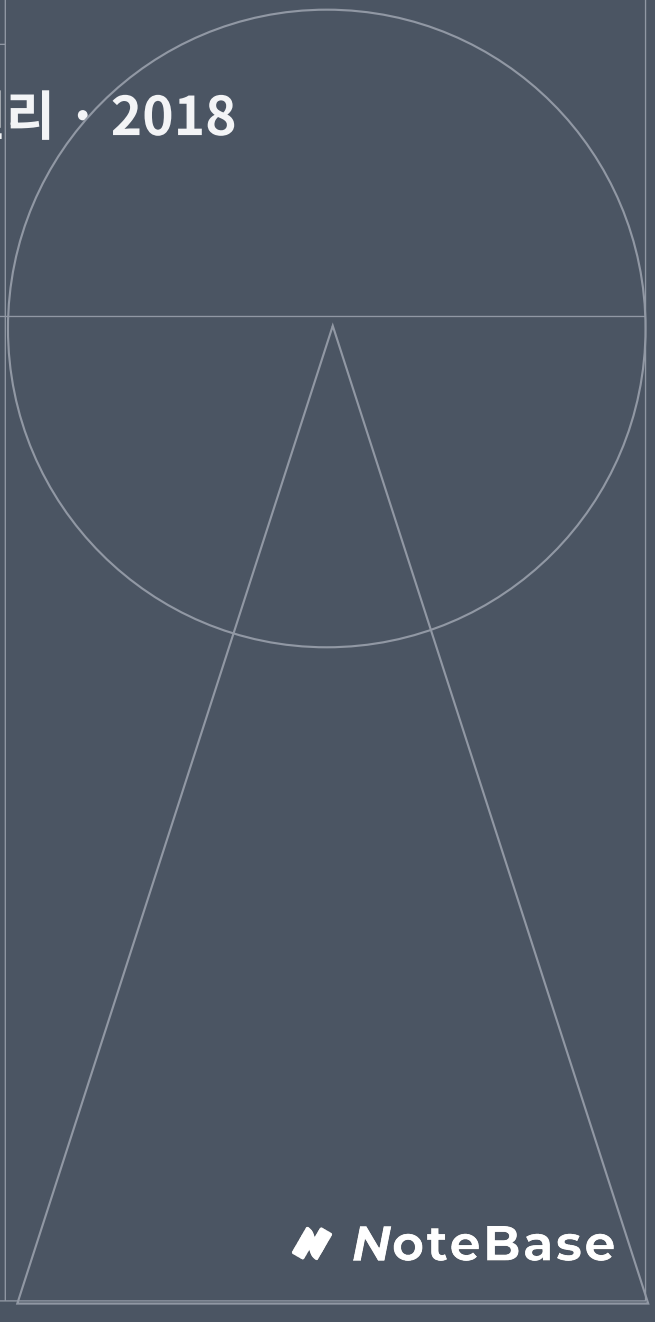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8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18

문 1.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흐름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ㄴ.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ㄷ. 자본변동표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ㄹ.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있고, 반드시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검토를 받아야 한다.
ㅁ.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총포괄손익을 나타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의 **자본 구성요소별 변동**을 보여 주며,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재무제표의 작성·표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 공인회계사의 외부검토가 모든 재무제표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현금흐름표는 일정 회계기간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었는지를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여 준다. 상품 판매대금의 수취는 영업활동, 설비 취득대금의 지급은 투자활동, 차입금의 유입은 재무활동의 예이다.

ㄴ. O: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고한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는 그날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을 보여 준다.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을 보여 주는 보고서와 구별된다.

ㄷ. X: 자본변동표는 기초에서 기말까지 **자본의 각 구성요소가 변한 내역**을 보고한다. 당기총포괄손익뿐 아니라 주주의 출자나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자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여 준다. 일정 회계기간의 수익·비용과 손익 등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ㄹ. X: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인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검토가 모든 재무제표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외부감사나 검토를 받더라도 경영진의 작성·표시 책임이 감사인 등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ㅁ. O: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함께 보여 준다. 기타포괄손익은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인식하는 수익·비용 항목이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금액**이 총포괄손익이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므로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2.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③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해당 기업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권리로부터 나오므로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소유권과 통제를 동일시**한 것이다.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기업이 해당 자원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다른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은 이미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취득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계획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설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설비를 현재의 자산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

② O: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자원이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판매하여 현금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돕거나 **현금 지출을 줄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O: 통제는 기업이 해당 자원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고, **다른 주체가 그 효익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지의 '해당 기업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업이 그 효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④ X: 법률적 권리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를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수단이지만, **법적 소유권이 자산 인식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소유권이 없더라도 기업이 자원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이 없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표현은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 기말수정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기말수정분개가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0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남아 있는 소모품은 ₩200,000이다.
(단, 기초 소모품 재고액은 없다)
◯ 당기에 발생한 미수이자수익 ₩1,000,000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당기순이익이 ₩800,000 증가한다.

② 자산총액이 ₩1,200,000 증가한다.

③ 부채총액은 변동이 없다.

④ 수정후잔액시산표의 차변합계가 ₩1,000,000 증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기말에 남은 소모품 200,000원은 자산으로 돌려 **소모품비를 줄이고**, 누락된 이자수익 1,000,000원은 수익으로 인식한다. 두 수정 모두 이익을 늘리므로 당기순이익은 800,000원이 아니라 **1,200,000원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기초 소모품이 없으므로 당기에 사용한 소모품은 1,000,000 − 200,000 = 800,000원이다. 구입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므로, 남은 200,000원을 자산으로 되돌리는 수정분개는 차변 소모품 200,000원, 대변 소모품비 200,000원이다. 또한 당기에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이자는 당기 수익과 받을 권리인 자산으로 인식하므로, 차변 미수수익 1,000,000원, 대변 이자수익 1,000,000원으로 수정한다.

① X: 소모품비가 200,000원 감소하면 그만큼 이익이 늘고, 이자수익을 인식하면 이익이 1,000,000원 늘어난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200,000 + 1,000,000 = 1,200,000원이다. 선지의 800,000원은 **당기 소모품 사용액**이며, 당기순이익 증가액이 아니다.

② O: 수정분개로 소모품 자산이 200,000원, 미수수익 자산이 1,00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자산총액은 200,000 + 1,000,000 = 1,200,000원 증가한다.

③ O: 소모품 수정은 자산과 비용을, 미수이자 수정은 자산과 수익을 조정한다. 두 수정분개 모두 **부채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채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④ O: 잔액시산표는 각 계정의 잔액을 차변 또는 대변에 모은 표이다. 소모품 수정에서는 차변잔액인 소모품이 200,000원 늘지만, 역시 차변잔액인 소모품비가 200,000원 줄어 **차변합계의 증감이 상쇄**된다. 미수이자 수정에서는 미수수익의 차변잔액이 1,00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수정후잔액시산표의 차변합계는 수정 전보다 1,000,000원 증가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의 외부감사인은 (주)한국이 제시한 2017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오류를 수정한 후의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단,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다)

◯ 임차료 과대계상액 ₩900,000
◯ 이자수익 과소계상액 ₩600,000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500,000
◯ 기말상품 과대계상액 ₩300,000

① ₩9,300,000
② ₩9,500,000
③ ₩9,800,000
④ ₩10,7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임차료 과대계상과 이자수익 과소계상은 순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과 기말상품 과대계상은 순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수정에 따른 **순증가액은 700,000원**이므로 올바른 당기순이익은 10,70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 10,000,000원에 수익과 비용의 수정 효과를 반영한다.

임차료 과대계상액 900,000원: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기록하여 순이익이 그만큼 작게 계산되었다. 임차료를 줄이면 **순이익은 900,000원 증가**한다.

이자수익 과소계상액 600,000원: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였다. 누락된 이자수익을 더하면 **순이익은 600,000원 증가**한다.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 500,000원: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여 순이익이 그만큼 크게 계산되었다. 부족하게 기록한 감가상각비를 추가하면 **순이익은 500,000원 감소**한다.

기말상품 과대계상액 300,000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 당기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서 계산한다. 기말상품이 실제보다 많게 기록되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순이익은 커진다. 기말상품을 300,000원 줄여 수정하면 매출원가가 300,000원 늘어나므로 **순이익은 300,000원 감소**한다.

순이익 증가액은 900,000 + 600,000 = 1,500,000원이고, 감소액은 500,000 + 300,000 = 800,000원이다. 순증가액은 1,500,000 − 800,000 = 700,000원이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000,000 + 700,000 = 10,70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의 2017년 중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 (주)한국은 2017년 중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금 ₩120,000을 받았다. 2017년 선수용역수익계정의 기초잔액은 ₩30,000이고, 기말잔액은 ₩40,000일 때 2017년도에 인식한 용역수익은?
○ (주)한국은 2017년 중 건물임차료로 현금 ₩70,000을 미리 지급하였다. 2017년 선급임차료계정의 기초잔액은 ₩10,000이고, 기말잔액은 ₩30,000일 때 2017년도에 인식한 임차료는?

① 용역수익: ₩110,000, 임차료: ₩50,000
② 용역수익: ₩110,000, 임차료: ₩70,000
③ 용역수익: ₩120,000, 임차료: ₩50,000
④ 용역수익: ₩120,000, 임차료: ₩7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현금 수수액에서 **아직 제공하지 않은 용역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임차기간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기초잔액을 더하고 기말잔액을 빼면 2017년 용역수익은 110,000원, 임차료는 5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용역수익: 선수용역수익은 현금을 받았지만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부채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용역수익은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때** 인식한다. 기초 선수용역수익 30,000원에 당기 현금 수령액 120,000원을 더한 150,000원은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수익 또는 선수용역수익으로 구분할 전체 금액이다. 이 중 기말에도 미제공 상태인 40,000원을 제외한다.
2017년 용역수익 = 30,000 + 120,000 − 40,000 = 110,000원

2. 임차료: 선급임차료는 미리 지급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지나지 않아 자산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임차료는 **해당 기간에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초 선급임차료 10,000원에 당기 현금 지급액 70,000원을 더한 80,000원은 사용 여부에 따라 비용 또는 선급임차료로 구분할 전체 금액이다. 이 중 기말에도 미사용 상태인 30,000원을 제외한다.
2017년 임차료 = 10,000 + 70,000 − 30,000 = 50,000원

용역수익 110,000원과 임차료 50,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의 2017년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은 ₩50,000이었으며, 2017년 중 다음의 거래가 있었다. (주)한국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과 2017년 말 이익잉여금은 각각 얼마인가?

◯ 원가 ₩1,000의 컴퓨터 1대를 ₩5,000에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 중 ₩1,500은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을 인식하였다.
◯ 장기차입금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 ₩400을 현금 지급하였다.
◯ 배당결의를 하고 배당금 ₩300을 현금 지급하였다.

① 당기순이익: ₩3,000, 이익잉여금: ₩53,000
② 당기순이익: ₩3,000, 이익잉여금: ₩53,300
③ 당기순이익: ₩3,300, 이익잉여금: ₩53,000
④ 당기순이익: ₩3,300, 이익잉여금: ₩53,3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상판매분을 포함한 판매금액에서 원가·감가상각비·이자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3,300원이다. 배당금 300원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감소**이므로 기말 이익잉여금은 53,000원이다.

계산 과정

판매로 인한 이익: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1,500원뿐 아니라 외상판매액 3,500원도 포함하여 **판매금액 5,000원 전액**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판매한 컴퓨터의 원가 1,000원을 차감하면 판매로 인한 이익은 5,000 − 1,000 = 4,000원이다.

당기순이익: 판매로 인한 이익에서 당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차감한다. 건물과 기계의 감가상각비 합계는 200 + 100 = 300원이며, 이는 현금 지출이 없어도 당기의 비용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4,000 − 300 − 400 = 3,300원이다.

기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남겨 둔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배당은 이익의 분배**이므로 당기순이익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기말 이익잉여금은 기초 잔액 50,000 + 당기순이익 3,300 − 배당금 300 = 53,000원이다.

당기순이익 3,300원과 기말 이익잉여금 53,000원의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①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② 감자차손

③ 자기주식처분이익

④ 사채상환손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는 당기순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금액이므로, 이 항목이 두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개념 구분

총포괄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타포괄손익 — ①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퇴직급여채무를 계산할 때 사용한 가정이 바뀌거나 실제 결과가 예상과 달라져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포괄손익에는 포함된다.

자본거래 — ② 감자차손·③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손은 자본을 줄이는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둘 다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에 따른 항목이므로 **자본에서 직접 처리**하며,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어느 쪽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당기손익 — ④ 사채상환손실: 사채를 상환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사채의 장부금액보다 클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를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반영**하므로 당기순손익을 감소시키고, 그 금액이 총포괄손익에도 반영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따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두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은 고객에게 60일을 신용기간으로 외상매출을 하고 있으며, 연령분석법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주)한국은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충당금설정률표를 작성하였다. 2017년 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대변잔액 ₩20,000이 있을 때, 결산시 인식할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구분	매출채권금액	기대신용손실률
신용기간 이내	₩1,000,000	1.0 %
1 ~ 30일 연체	₩400,000	4.0 %
31 ~ 60일 연체	₩200,000	20.0 %
60일 초과 연체	₩100,000	30.0 %

① ₩66,000

② ₩76,000

③ ₩86,000

④ ₩96,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연령분석법으로 계산한 96,000원은 **기말에 필요한 손실충당금 잔액**이다. 이미 대변잔액 2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76,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연령분석법은 매출채권을 신용기간 경과 여부와 연체기간에 따라 나누고, 각 구간의 채권금액에 기대신용손실률을 곱하여 기말 손실충당금 필요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신용기간은 60일이며, 표의 연체기간은 이 신용기간을 넘긴 뒤의 기간이다.

신용기간 이내: 1,000,000원 × 1.0% = 10,000원이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채권에도** 표에 제시된 기대신용손실률을 적용한다.

1~30일 연체: 400,000원 × 4.0% = 16,000원이다.

31~60일 연체: 200,000원 × 20.0% = 40,000원이다.

60일 초과 연체: 100,000원 × 30.0% = 30,000원이다.

기말 손실충당금 필요액: 10,000 + 16,000 + 40,000 + 30,000 = 96,000원이다. 이는 **결산 후 손실충당금 계정에 남아야 할 대변잔액**이며, 이번에 추가로 인식할 비용과는 구분한다.

결산 시 손상차손: 필요한 대변잔액 96,000원에서 기존 대변잔액 20,000원을 빼면 76,000원이다. 손상차손을 차변에, 손실충당금을 대변에 각각 76,000원 기록하면 충당금 대변잔액이 96,000원이 된다. 따라서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은 76,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2017년 1월 1일 상품을 ₩3,500,000에 판매하였다. 판매 시에 현금 ₩500,000을 수령하고, 잔금 ₩3,000,000은 2017년 말부터 매년 말 ₩1,000,000씩 3년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2017년에 인식할 매출액과 이자수익은? (단, 유효이자율은 1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	0.9091	0.9091
2	0.8264	1.7355
3	0.7513	2.4868

① 매출액: ₩1,500,000, 이자수익: ₩75,130

② 매출액: ₩1,500,000, 이자수익: ₩248,680

③ 매출액: ₩2,986,800, 이자수익: ₩75,130

④ 매출액: ₩2,986,800, 이자수익: ₩248,68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매출액은 판매 시 받은 현금과 **잔금의 현재가치**를 합한 2,986,800원이다. 2017년 이자수익은 잔금의 현재가치 2,486,800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한 248,68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잔금의 현재가치: 대금을 장기간 나누어 받으므로, 계약상 판매금액 3,500,000원에 포함된 이자 부분을 매출액과 구분한다. 잔금은 2017년 말부터 3년간 매년 말 1,000,000원씩 받는 **정상연금**이다. 따라서 표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열에서 3기간 계수 2.4868을 적용한다. 잔금의 현재가치는 1,000,000 × 2.4868 = 2,486,800원이다. 이는 앞으로 받을 잔금 3,000,000원을 판매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2017년 매출액: 상품은 2017년 1월 1일 판매하였으므로, 이때 받은 현금 500,000원과 잔금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매출을 인식한다. 즉, 매출액은 500,000 + 2,486,800 = 2,986,800원이다. 대금을 나누어 받더라도 **현금을 받은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간 초 채권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판매일에 인식한 채권은 2,486,800원이고 첫 회수일은 2017년 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 1년간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수익은 2,486,800 × 10% = 248,680원이다. 판매 시 이미 받은 현금 500,000원은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2017년 매출액 2,986,800원과 이자수익 248,680원의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분할을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ㄴ.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ㄷ.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ㄹ.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자본 총액은 변동하지 않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의 다른 항목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래이다.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본 총액은 그대로이고 자본금만 증가한다.

보기별 해설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자본금뿐 아니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본금이 증가하더라도 다른 자본 항목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면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ㄱ. X: 주식분할은 기존 주식의 액면금액을 낮추고 그 비율만큼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액면금액과 발행주식수의 곱은 같으므로 **자본금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총액과 자본금이 모두 변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한다.

ㄴ. O: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ㄷ. X: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현금 등의 출자를 받는 것이다. 출자로 자산이 유입되므로 **자본총액도 증가**한다. 자본금은 신주의 액면금액만큼 증가하며,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받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자본 총액과 자본금이 모두 증가한다고 고쳐야 한다.

ㄹ. O: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추가 납입을 받지 않고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대체**되므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과 ㄹ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의 2017년도 수정전시산표는 다음과 같다.
결산수정분개를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이익은?

현금	₩100,000	단기차입금	₩500,000
매출채권	₩500,000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40,000
건물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감가상각비	₩100,000	자본금	₩500,000
급여	₩300,000	매출	₩760,000
합계	₩2,000,000	합계	₩2,000,000

◯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비용 ₩50,000이 있다.
◯ 매출채권 기말잔액의 10%를 기대신용손실액으로 추정한다.

① ₩200,000
② ₩260,000
③ ₩300,000
④ ₩36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정전 이익 360,000원에서 미지급 이자비용 50,000원과 **손실충당금 추가 설정액 1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300,000원이다. 기대신용손실액 50,000원 전부가 아니라 기존 충당금 40,000원과의 차액만 당기비용으로 추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수정전 이익: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전시산표의 수익은 매출 760,000원이고, 비용은 감가상각비 100,000원과 급여 300,000원이므로 수정전 이익은 760,000 − 100,000 − 300,000 = 360,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200,000원은 건물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2. 미지급 이자비용: 단기차입금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비용 5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를 각각 50,000원씩 추가하므로 당기순이익이 50,000원 감소한다. 단기차입금 원금 500,000원은 부채이므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손실충당금 조정: 매출채권 기말잔액 500,000원의 10%인 500,000 × 10% = 50,000원이 기말에 필요한 손실충당금이다. 수정전시산표에 손실충당금 40,000원이 이미 있으므로, **부족한 10,000원만** 손상차손(대손상각비)으로 추가 인식한다. 이에 따라 손실충당금은 50,000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10,000원 감소한다.

4. 당기순이익: 수정전 이익에서 두 결산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차감한다. 당기순이익은 360,000 − 50,000 − 10,000 = 30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재무제표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③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④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익에서는 **지분참여자의 출연에 따른 자본 증가를 제외**한다. 주주가 출자하여 자산과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기업의 자산 중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를 제외하고 남는 몫이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다.

② O: 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며, 이를 이행하려면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이미 이루어진 매입으로 대금 지급의무가 생기고, 이후 현금을 지급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다. 단순히 앞으로 상품을 살 계획만 세운 것은 현재의무와 다르다.

③ X: 수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자산의 유입·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여 자본을 늘리는 것이지만,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증가는 제외**한다. 따라서 '출연과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를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로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현금을 출자하면 현금과 자본이 증가하지만, 이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수익이 아니다.

④ O: 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에 자산의 유출·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여 자본을 줄이는 것이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을 감소시키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2017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구분	원가	소매가
기초재고	₩ 48,000	₩ 80,000
당기매입	₩ 120,000	₩ 160,000
매출	–	₩ 150,000

① ₩ 54,000

② ₩ 58,500

③ ₩ 63,000

④ ₩ 67,5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고의 소매가는 80,000 + 160,000 − 150,000 = 90,000원이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초재고가 먼저 판매되므로 남은 재고에 **당기매입분의 원가율 75%**를 적용하면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67,500원이다.

계산 과정

기말재고의 소매가: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의 소매가를 합한 판매가능상품의 소매가는 80,000 + 160,000 = 240,000원이다. 여기에서 판매된 상품의 소매가인 매출액을 빼면 기말재고의 소매가는 240,000 − 150,000 = 90,000원이다.

선입선출법의 원가율: 소매재고법은 기말재고의 소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원가를 추정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매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본다. 매출액 150,000원이 기초재고 소매가 80,000원보다 크므로 기초재고는 모두 판매되고 기말재고는 당기매입분으로 남는다. 따라서 **기초재고를 제외한 당기매입분의 원가와 소매가**로 원가율을 구한다. 원가율은 $\frac{120,000}{160,000} = 0.75 = 75\%$이다.

기말재고자산 원가: 기말재고의 소매가 90,000원에 당기매입분의 원가율을 적용한다.
$90,000 \times \frac{120,000}{160,000} = 67,500$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67,500원으로,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④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무형자산이 이후에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상각을 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변경되면 **변경 이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따라서 변경된 뒤에도 계속 상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정의를 충족하려면 **식별가능성·통제·미래 경제적 효익**이 모두 필요하다. 식별가능성은 자산을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거나 계약상·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는 뜻이고, 통제는 효익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에는 매출 증가뿐 아니라 원가 절감도 포함된다.

② O: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은 물리적 실체 없이 기술·표지·저작물에 관한 권리로 효익을 얻는 무형자산의 예이다. 이러한 권리가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O: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무형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의 가치를 취득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피취득기업이 기록하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비한정내용연수는 순현금유입이 발생할 기간에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내용연수가 유한한 것으로 바뀌면 상각할 기간이 정해진다.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하여 상각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변경 이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따라서 '변경된 경우에도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변경 이후에는 상각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6년 5월 1일 기계장치를 ₩4,000,000에 취득하였다. 추정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내용연수는 3년,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이며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주)한국이 이 기계장치를 2017년 8월 31일 ₩2,00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처분손실 ₩1,000,000

②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처분손실 ₩200,000

③ 감가상각누계액 ₩2,200,000, 처분이익 ₩200,000

④ 감가상각누계액 ₩2,600,000, 처분이익 ₩6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취득일부터 첫 12개월에 3/6, 다음 12개월에 2/6을 적용한다. 처분일까지 16개월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200,000원**이며, 장부금액 1,800,000원보다 처분대금이 200,000원 많으므로 **처분이익 200,000원**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감가상각대상금액: 잔존가치는 4,000,000 × 10% = 400,000원이다.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적용하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4,000,000 − 400,000 = 3,600,000원이다.

2. 첫 12개월의 감가상각비: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잔여내용연수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이다. 내용연수가 3년이므로 연수의 합계는 3 + 2 + 1 = 6이고, 첫해의 상각률은 $\frac{3}{6}$이다.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가 첫 12개월이므로, 이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3{,}600{,}000 \times \frac{3}{6} = 1{,}800{,}000$원이다.

3. 다음 4개월의 감가상각비와 누계액: 2017년 5월 1일부터는 두 번째 사용연도이므로 상각률은 $\frac{2}{6}$이다. 처분일인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두 번째 사용연도 중 4개월**이 경과했으므로, 월할 감가상각비는 $3{,}600{,}000 \times \frac{2}{6} \times \frac{4}{12} = 400{,}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000 + 400,000 = 2,200,000원이다.

4. 장부금액과 처분손익: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4,000,000 − 2,200,000 = 1,800,000원이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처분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이익은 2,000,000 − 1,800,000 = 200,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2,200,000원과 처분이익 200,000원은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자연보호구역 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이때 당국의 주차장 설치 허가조건은 3년 후 주차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차장은 2017년 1월 1일 ₩5,000,000에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자에 3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000,000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복구의무는 충당부채에 해당한다. 주차장(구축물)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7년도 주차장(구축물)의 감가상각비는? (단, 복구공사 소요액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3년 후 ₩1의 현재가치는 0.7513이다)

① ₩1,917,100

② ₩1,932,100

③ ₩1,992,230

④ ₩2,0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설치 시 부담한 복구의무는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주차장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원가 5,751,300원을 잔존가치 없이 3년간 정액법으로 배분하므로, 2017년 감가상각비는 1,917,100원이다.

계산 과정

1. 복구충당부채의 최초 금액: 주차장 설치로 발생한 철거·원상복구의무는 3년 후 이행하므로, 미래 복구비용 1,000,000원을 **설치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연 10%에 대한 3년 현재가치계수 0.7513이 주어져 있으므로, 최초 복구충당부채는 1,000,000 × 0.7513 = 751,300원이다.

2. 주차장 취득원가: 설치 시 발생한 복구의무의 최초 추정액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동시에 **주차장 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주차장 취득원가는 설치비 5,000,000 + 복구비용 현재가치 751,300 = 5,751,300원이다. 미래 지출액 1,000,000원 전액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

3. 2017년 감가상각비: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였으므로 **1년분 전액**을 인식한다. 잔존가치는 0원이고 내용연수는 3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5,751,300-0}{3} = 1,917,100$원이다. 복구충당부채가 시간 경과로 증가하는 금액은 이자비용이며, 위 감가상각비에 더하지 않는다.

2017년 주차장 감가상각비 1,917,100원은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취득원가 ₩70,000의 토지를 2017년 중 현금 ₩100,000을 받고 처분하였다. 또한 2017년 중 새로운 토지를 ₩90,000에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중 ₩3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주)한국의 2017년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① ₩10,000

② ₩40,000

③ ₩70,000

④ ₩1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토지의 취득·처분에서는 **실제로 주고받은 현금**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현금 유입 100,000원에서 현금 지급 30,000원을 차감하므로 순현금유입은 70,000원이다.

계산 과정

토지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토지와 같은 장기자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에 속한다.
2017년에 토지를 처분하고 현금 100,000원을 받았으므로 투자활동 현금유입은 100,000원이다. 이때 반영하는 금액은 **취득원가 70,000원이 아니라 실제 처분대금 100,000원**이다.

토지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새로운 토지의 구입대금은 90,000원이지만, 그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0,000원이다. 나머지 60,000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투자활동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유출은 30,000원이다.

투자활동 순현금흐름: 현금유입에서 현금유출을 차감한다.
100,000 − 30,000 = 70,000원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크므로 2017년 투자활동에서는 70,000원의 순현금유입이 발생하며,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현재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200%와 100%이다. (주)한국이 2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한 경우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① 유동비율: 증가, 부채비율: 증가

② 유동비율: 감소, 부채비율: 감소

③ 유동비율: 증가, 부채비율: 감소

④ 유동비율: 감소, 부채비율: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장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아** 유동비율이 낮아진다.
부채비율도 **총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은 변하지 않아** 낮아진다.

구성 요소별 해설

장기차입금 조기 상환: 만기가 2년 후인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다.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현금과 장기차입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유동자산과 총부채는 감소하지만, **유동부채와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차입금 원금의 상환은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다. 현금 지출로 분자인 유동자산만 감소하고, 상환한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므로 분모인 유동부채는 그대로이다. 따라서 유동비율은 기존 200%보다 낮아진다.

부채비율: 부채비율=총부채자본×100\%이다.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분자인 총부채가 감소하고 분모인 자본은 그대로이므로, 부채비율은 기존 100%보다 낮아진다. **총자산이 아니라 자본을 분모로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두 비율이 모두 감소하므로 '유동비율: 감소, 부채비율: 감소'인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차세대 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2017년 개발단계 지출액 ₩600,000은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동년 7월 1일에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회수가능액이 2017년 말 ₩500,000이라고 할 때,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구분	2016년	2017년
연구단계	₩ 100,000	₩ 100,000
개발단계	–	₩ 600,000

① ₩ 40,000

② ₩ 70,000

③ ₩ 100,000

④ ₩ 26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상각 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7월부터 6개월간의 상각비 30,000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570,000원이므로, 회수가능액 500,000원을 초과하는 7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무형자산 취득원가: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표의 2016년 연구비 100,000원과 2017년 연구비 100,000원은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한 **2017년 개발단계 지출액 600,000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2. 상각비와 손상 전 장부금액: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한다.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6개월이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므로, 연간 상각비는 $\frac{600{,}000 - 0}{10} = 60{,}000$원이다. 월할 계산한 2017년 상각비는 $60{,}000 \times \frac{6}{12} = 30{,}000$원이며,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은 600,000 − 30,000 = 570,000원이다.

3. 손상차손: 원가모형에서 상각 후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낮춘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570,000 − 500,000 = 7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2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주식은 영업개시와 동시에 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95,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주)한국의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될 배당금액은?

○ 보통주(주당액면 ₩5,000, 발행주식수 60주)	₩300,000
○ 우선주(5%, 비누적적, 비참가적; 주당액면 ₩5,000, 발행주식수 20주)	₩100,000
○ 우선주(5%, 누적적, 완전참가적; 주당액면 ₩5,000, 발행주식수 40주)	₩200,000

① ₩15,000
② ₩25,000
③ ₩30,000
④ ₩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누적적 우선주에는 2012~2016년의 **5년분 우선배당**을 먼저 배정한다. 보통주에도 우선배당률과 같은 5%를 배당한 뒤, 잔액은 **보통주와 완전참가적 우선주만** 나누므로 보통주 배당액은 기본배당 15,000원과 추가배당 15,000원을 합한 3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 자본금 100,000원에 배당률 5%를 적용하면 2016년분 우선배당은 100,000 × 5% = 5,000원이다. **비누적적**이므로 과거에 배당하지 않은 연도의 금액을 이월하지 않으며, 비참가적이므로 이 금액을 넘는 추가배당도 받지 않는다.

2. 누적적·완전참가적 우선주: 자본금 200,000원에 대한 연간 우선배당은 200,000 × 5% = 10,000원이다. **누적적**이므로 배당하지 않은 2012~2015년의 4년분 40,000원과 2016년분 10,000원을 합해 50,000원을 우선 배정한다. 배당 선언은 2017년에 이루어졌지만 배당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7년분을 더하지 않는다.

3. 보통주의 기본배당과 잔여배당 재원: 완전참가적 우선주와 추가배당을 나누기 전에 보통주에도 **우선배당률과 같은 5%**를 적용한다. 보통주 자본금은 300,000원이므로 기본배당은 300,000 × 5% = 15,000원이다. 전체 배당액에서 두 종류의 우선배당과 보통주 기본배당을 차감하면 95,000 − 5,000 − 50,000 − 15,000 = 25,000원이 남는다.

4. 보통주의 추가배당: 잔여액 25,000원은 **보통주와 완전참가적 우선주의 자본금 비율**로 배분한다. 비참가적 우선주 자본금 100,000원은 배분 기준에서 제외하므로 기준 금액은 300,000 + 200,000 = 500,000원이다. 보통주의 추가배당은 $25{,}000 \cdot \frac{300{,}000}{500{,}000} = 15{,}000$원이다.

5. 보통주 귀속 배당액: 기본배당 15,000원과 추가배당 15,000원을 합하면 3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